

[HOME](#) > [전국/사회/문화](#)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추석 명절 앞두고 명랑대첩 축제장 일원에서 농지 이양 은퇴 직불 홍보 눈길

온 박용준 기자 | 승인 2025.09.23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지난 19~21일까지 명랑대첩 울돌목 축제장 일원에서 고령 농업인(65세~84세)을 대상으로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 홍보에 나섰습니다.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미리 고향을 방문한 자녀들도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진제공 진도농어촌공사

[전남 진도=팩스경제TV]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최진)는 지난 19~21일까지 진행되는 명랑대첩 울돌목 축제장 일원에서 고령 농업인(65세~84세)을 대상으로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홍보는 추석 명절을 앞서 미리 고향에 방문한 자녀들이 고령 및 질병으로 인해 힘겹게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의 농업은퇴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농 활동이 어려울 시 농지를 매도하거나 농지 연금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며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청년 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 ▶가입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 진흥 지역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농지를 ▶즉시 매도할 시 1ha당 월 50만 원과 함께 농지 매도 대금을 지급하며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1ha당 월 40만 원, 은퇴 직불형 농지 연금(최대 300만 원), 농지임대료, 농지 매도 대금(농지 연금 채무액 제외)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홍보에서 은퇴 직불 상담을 받았던 주된 연령층은 비교적 젊은 나이대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을 방문한 한 청년은 "부모님이 고령에 나이에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농사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가 걱정된다"며, "이번 기회에 아버지를 설득하여 농지를 매도하고 은퇴직불금을 받으며 노후 새로운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기고자 한다"고 은퇴 직불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진 진도지사장은 "금번 명량대첩 축제 홍보와 더불어 앞으로도 많은 지역 인프라 및 SNS를 통해 고령 농업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은퇴 직불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령·질병으로 인해 농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고령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받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나 진도지사,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팩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용준 기자 기자